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상황과 처지가 악화됨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일상을 성실하게 버티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1.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고위 관료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분명 꼬였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아들은 이제 먼 타국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처지와 신분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맡은 일이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바뀌고 신분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요셉만 느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아 차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로 그 때부터 여호와와 복이 보디발의 집 안팎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요셉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 보디발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창 12:1-3). 하나님의 백성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2. 요셉을 보내신 하나님

요셉은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 땅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자 죄의 유혹을 단호히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종에서 죄수로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하였고, 간수장은 제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현실의 간극을 만납니다. 우리 눈에는 요셉이 결코 형통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인생이 계속해서 더 비참한 환경에 던져질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악과 거짓으로 인해서 더 극심한 고난으로 내몰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요셉과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 교회와 성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경영을 감추어 놓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